

10/31(월) 욥기 묵상 45

욥기 35:1-16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35장에서 엘리후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변호하게 됩니다. 이 장에서 핵심은 욥이 억울해 하는 그의 의로움을 거론하면서 그것이 욥 자신과 그의 이웃들에게는 대단한 지 몰라도 창조주 하나님께는 별 것도 아니라는 주장을 펼칩니다. 그리고 욥이 해야 할 일은 결국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욥의 독선을 비난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께 당한 억울한 고난을 인용하면서 과연 욥이 주장하는 의가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를 질문합니다(2절,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나”). 그러면서 욥이 착하게 살든지 악하게 살든지 그것은 하나님께 별로 상관이 없다는 말을 합니다(6-7절, “그대가 범 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 이유는, 엘리후에 따르면, 그것은 사람이 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8절,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결과적으로 엘리후는 욥이 행한 의로 인해 너무 억울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편에서 보셨을 때는 그것이 부족하고 죄가 될 수도 있다는 논리입니다. 이는 마치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유대교 지도자들의 신앙을 책망하시는 말씀과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금식과 십일조, 구제, 그리고 율법의 모든 내용을 철저히 지켰지만 결국 예수님께 인정을 받기는 커녕 그들의 외식적인 신앙으로 인해 책망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 의를 자랑하는 유대인들에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 19:23-24,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그러나 우리는 욥과 유대교 지도자들이 느끼는 모습이 같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유대교 지도자들처럼 겉과 속이 다르면서 자신의 의를 자랑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욥은 자신의 의를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의 온전한 행위를 사탄에게 자랑했던 것입니다(욥 1:8,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므로 엘리후의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엘리후의 조언은 첫째로 욥이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우회적으로 욥을 정죄하며 비판합니다(9절, “사람은 학대가 많으므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러 소리치나”). 즉 욥이 친구들에게 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은 잘못되었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만이 억울한 자들을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11절,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둘째로 욥이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것입니다(12-13절,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은 사람이 단지 그에게 부르짖는다고 해서 응답하지 않으시는데 그 이유는 악인의 교만 즉 죄로 인함입니다. 그러므로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께 호소하되 그의 죄를 먼저 회개할 것을 조언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후는 욥이 지금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아직도 욥에 대한 심판을 시작도 하지 않으셨다는 말과 함께 욥에 대한 혹독한 비난을 하게 됩니다(15절,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오늘 말씀을 묵상한대로 우리의 말과 조언이 때로는 상대방에게 위로가 아니라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상담을 할 때 상대방에게 무리한 해결책을 주려고 할 때 이러한 오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상담의 가장 기본적인 배려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때 옳고 그름의 판단이 없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먼저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담자가 볼 때 아무리 내담자가 답답해 보인다 할지라도 내 입장에서 먼저 그 원인을 분석하고 해답을 제시하는 것은 도움이 아니라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엘리후의 경우는 사실 욥이 상담을 요청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 친구들과 욥의 대화를 옆에서 엿듣고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욥에게 일방적으로 변론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자신의 말이 아무리 진심을 담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할지라도 문제는 욥에게 그는 세 친구들보다 더 큰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이러한 엘리후의 말을 듣고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은 그의 말이 옳았기 때문이 아니라 더이상 대답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엘리후는 욥과 세 친구들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입니다. 욥의 무반응은 어린 엘리후를 향한 배려일 지도 모릅니다. 고난을 당한 사람이 위로를 받기는 커녕 자신을 무자비하게 비판하는 사람까지 배려하는 모습은 욥이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 처지에 가게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미성숙하고 어릴 적에 부모에게 했던 말들이 나중에 후회로 남듯이 엘리후도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부족함을 기다려주시고 또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도 그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길 기원합니다.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 1. 적용의 기도:** 오늘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 2. 한국을 위한 기도:** 한국의 경제가 지금 많이 힘든 가운데 있는데 안정을 되찾게 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국 교회와 북한 땅에 복음화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 3. 교회를 위한 기도:** 오늘은 브랜포드 1구역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 4. 선교지를 위한 기도:** IRIS(난민사역)를 위해서 기도합니다.